

# 순천시,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연향들'로 확정

## 입지 최종 결정·고시...입지선정 행정절차 마쳐 시민 분열·시정 불신 등 조장 행위 '법적 조치'

순천시가 2일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연향들'을 신규 폐기물처리시설(공공자원화시설) 입지로 최종 결정·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공공자원화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주민친화시설을 갖춘 지역의 명소로 조성할 방침이다.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달 말 연향들 814-25 일원을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최종 확정하고 시에 통보한 바 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해 6월 연향들 일원을 공공자원화시설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고 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대기, 약취, 수질, 토양 등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도 환경영향에 대한 협의 완료했으며 공공자원화시설 계획의 적정

성 및 입지 타당성을 확인받았다.

입지 결정·고시에 따른 입지 지형도면과 토지조서는 순천시 청소 자원과 및 순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2일부터 5월 17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 기술이 고도화되고 최첨단으로 발전한 만큼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고의 기술과 설비를 도입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로 건설해 지역의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2일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도를 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 시장은 "지금까지의 모든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면서 "시장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많은



전남 순천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지로 선정된 순천시 연향들 일원. (사진=순천시 제공)

관계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시는 공공자원화시설 입지와 관련해 시민 분열과 시정 불신 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절



## 광양시, 품목별 전문가 통한 영농기술 제공

광양시는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을 5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컨설팅은 품목별 전문가가 직접 영농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는 농업인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본 교육은 일반적인 농업 교육과 달리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시기에 현장에서 농업현황을 관찰하고, 문제에 대한 처방식 컨설팅을 진행해 교육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시는 지난해 아열대과수, 플럼코트, 화훼,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농업인 72명을 대상으로 선도 농가 현장 견학을 비롯한 이론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총 8회 진행했으며, 올해는 아열대과수, 딸기, 시설채소(토마토·애호박)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컨설팅은 지역 내 시설과채류(토마토, 애호박, 딸기)를 재배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시설하우스 환경 관리, 재배 기술, 병해충 관리에 대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수 미래농업팀장은 "본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 시원하게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 보성군 '2024년 노후 관광지 재생 공모사업' 선정

### 울포솔밭해수욕장 20억 원 투입, 관광 활성화 기대

보성군은 전남도가 주관한 '2024년 노후 관광지 재생 공모사업'에 울포솔밭해수욕장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노후 관광지 재생 사업'은 오래된 관광시설을 개선하고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도입해 지

역관광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확보한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주요 사업은 △솔밭 낭만의 거리 보행로 개선, △야간 경관 조명과 조형물 설치, △야외 공연 무대 보완, △노후 주차장 재포장, △관광

객 편의시설 확충 등이다.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관광지 주차장 시설을 개선하고, 화장실, 샤워실, 쉼터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해 오는 여름부터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여름철 성수기 이후에는 솔밭 낭만의 거리와 모래 해변을 중심으로 보행로, 경관조형물, 경관조명, 사진 촬영 장소(포토존), 야외무대 등을 설치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

공할 계획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올 3월에 착공한 울포솔밭해수욕장을 비롯해 주민 소득을 높이는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전남교육수련원 등 울포솔밭해수욕장이 관광지로 지정된 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라며 "보성 울포솔밭해수욕장이 남해안 관광의 중심이 되고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김덕순기자



고흥군은 지난 2일 군청 흉양홀에서 2024년 도 제1차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 고흥군, 고흥 녹동항 드론쇼 안전관리계획 심의

### 2024년 제1차 고흥군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개최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조대정 부군수와 정동준 재난안전과장 등 6명의 관계 공무원과 고흥경찰서, 고흥소방서, 한국전력 고흥지사, 한국기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 등 10개의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오는 4월 13일부터 10개월간 매주 토요일 밤에 개최되는 <고흥 녹동항 드론쇼> 행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조직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비상시 대응 요령과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면밀하게 심의했다.

고흥군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순간 최대 관람객 1천 명 이상 또는 산·수면에서 개최하는 축제, 폭죽이나 가연성 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행사 등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축제에 대해 사전에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진행한다.

조대정 부군수는 "안전한 지역행사 개최를 위해 협조해주시는 유관기관과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단 한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 여수항, 국제크루즈

### 美 '씨번 씨전호' 입항

여수항에 4일 오전 미국 선사 '씨번 씨전호'가 입항했다.

'씨번 씨전호'는 3만 톤급, 길이 198m에 달하는 럭셔리 국제크루즈로, 승객 540명과 승무원 330명 등 총 870명이 탑승했다. 이들은 여수에서 9시간을 머물며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시립국악단 '취타대'의 환영공연을 비롯해 주요 관광지 무료 셔틀버스 운행, 문화관광해설사 및 통역 지원 등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에 힘썼다.

이날 크루즈 입항을 직접 맞이한 김중기 부시장은 "새봄맞이 국제크루즈 입항이 본격화됨에 따라, 여수가 해외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관광지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남은 입항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기동취재본부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품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



**전라남도**